



페이스북 “2019년 9월 전 5.3억명 정보 유출”

이름·거주지·이메일 주소 등 106개국 이용자 정보 유출
해킹 아닌 플랫폼서 데이터 긁어가
사이버 범죄 정보업체 허드슨록 정보 설정 확인·보안 강화 당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은 6일(현지시간) 5억 3000만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2019년 9월 이전에 추출(스크래핑·scraping)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드가 지난 3일 한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페이스북 이용자 5억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페이스북은 뉴스를 통해 악성 행위자들이 2019년 9월 이전에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긁어갔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를 자동화된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수법이라면서 2019년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소셜미디어 서비스에서 이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것을 놓고 해킹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당시 조치를 취해 데이터를 긁어갈 수 있도록 했던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전 세계 106개 국가에서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보가 유

출됐다.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성별 등의 정보가 포함됐다. 비즈니스인사이드는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려진 페이스북 이용자 전화번호와 맞춰보는 식으로 검증했다. 페이스북은 유출된 정보에 비밀번호와 재무, 건강 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사이버범죄 정보업체 허드슨록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엘런 겔은 트위터에 “나쁜 행

위자들은 분명히 유출된 정보를 해킹, 사기, 마케팅에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설정을 확인하고 계정 보안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은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영국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정치 광고를 위해 페이스북 이용자 8000만명의 데이터를 수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연합뉴스

벼르는 트럼프

내년 중간선거 자금 950억 모금 ‘배신자’ 보복·대권 재도전 전망

내년 중간선거 개입은 물론 2024년 대선 재도전까지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500만달러(약 953억원)가 넘는 ‘군자금’을 모았다고 CNBC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위원회(PAC) ‘세이프 아메리카’가 2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규모의 금액을 수중에 쥐고 있다고 CNBC에 밝혔다.

지난해 대선 이후 설립된 ‘세이프 아메리카’는 작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3000만달러 이상을 모금한 바 있다.

지난 1분기에 추가로 모금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된 작년 말 현금 보유고가 3100만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서만 5000만달러 이상을 모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보도된 8500만달러의 정치자금은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계된 다른 PAC들의 모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자금을 2022년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우선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안에 찬성 투표를 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을 우선적인 복수 대상으로 선정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운동을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CNBC는 예상했다.

과거 ‘보수 텃밭’에서 최근 경향주로 바뀐 조지아주는 지난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승을 거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재도전에 나설 경우 반드시 탈환해야 할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조만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춘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전망이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이란 핵합의 복원 위한 오스트리아 빈 회의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공동위원회 참가국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2018년 5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핵합의 탈퇴 및 대이란 제재 재개 이후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미얀마軍 네 살 아이에 “아빠 어딤어?”

2살 조카딸 등 어린이 3명 구금... 반군부 인사 은신처 캐물어

미얀마군의 비인도적 만행이 갈수록 도를 더해 가고 있다. 50명 가까운 아이들을 총으로 살해해 전 세계인의 공분을 산 가운데, 반(反)군부 활동을 하는 어른을 잡기 위해 10살도 채 안된 아이들까지 구금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7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경은 이틀 전 바고 지역의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의 공보 책임자 자 레이의 가족 및 친지 6명을 15시간 가량이나 구금했다. NLD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이끈 문민정부의 집권당이였다.

자 레이는 2월 1일 쿠데타 이후 반대 시위를 이끈 바고 군중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그를 기소했고, 그는 집을 떠나 도주 중이다. 군부는 이후 자수를 종용하며 가족을 압박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자 레이에 따르면 군경이 6차레 이상 집을 찾아와 행방을 묻고 자수를 권유하라고 종용했다. 견디다 못한 아내도 네살짜리 딸을 친정에 맡기고 다른 곳에 몸을 숨겼다. 5일 새벽 일찍 자 레이의

장모와 처제 등이 딸을 그의 엄마에게 데려가던 중 군경에 의해 붙잡혔다.

이 중에는 자 레이의 네 살짜리 딸과 두 살배기 조카딸 그리고 그의 13살 짜리 오빠 등 아이 3명도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들은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다시 군부대로 옮겨졌다. 한 친척은 이라와디에 “아이들은 겁에 질렸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 레이가 어딘지를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짜 자 레이에 대해 아는게 없다는 걸 알고 나서야 우리를 풀어줬다”고 덧붙였다.

딸의 소식을 전해 들은 자 레이는 미얀마 나무에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체포하거나 어디론가 데려갈 이유가 없다. 내 딸은 너무나 어리다”면서 “이는 국제법과 아동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라와디는 군경이 반(反)군부 운동의 핵심인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NLD 당원이나 시위 지도부, 공무원들의 자수를 종용하기 위해 가족 및 친척들을 붙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IU “한국, 올 물가 상승 빠를 것”

英 경제 분석기관 “호주·홍콩 등 5개국 전년비 0.5%~2% 상승”

한국이 올해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아시아 지역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7일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간한 ‘아시아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억제될까’라는 보고서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주로 아시아 지역 선진국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그중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보다 0.5~2%포인트 상승할 국가로 한국과 호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꼽았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억눌린 수요가 많고 주택과 수입 소비재 등이 물가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쏟아낸 반면 가계 부문은 지출 기회가 줄어들어 일부 아시아 국가의 가계 저축이 상당히 증가했다.

예컨대 일본의 가계 저축률은 지난해 40%를 돌파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0~30%를 훌쩍 뛰

어넘었다.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이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풀려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택가격도 아시아 지역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낮은 대출금리를 바탕으로 호주에서는 벌써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입 소비재는 운송비 상승을 통해 간접적으로 물가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로 화물 수송이 차질을 빚고 컨테이너선이 부족한 탓에 코로나19 대확산 이래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200%가량 급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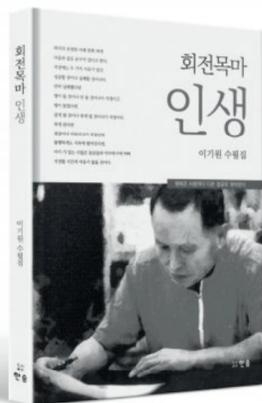
이런 운송비 상승은 특히 부피가 크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들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재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물가상승률 증가세는 온건한 수준이고, 여러 국가에서 물가상승이 경제 회복 신호로 환영받을 것으로 밝혔다. /연합뉴스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야.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이야.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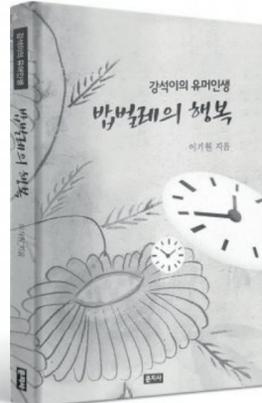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르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